

2026년 5월 1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또 다시 매크로 불확실성에 종속된 시장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금리 향방, 2)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및 4월 FOMC 의사록, 3) 일본 4월 CPI, 미국 5월 기대인플레이션, 4)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 내러티브 변화 여부, 5) 지난 금요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150~7,700pt).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6%대라는 역대급 폭락을 겪은 만큼, 주 초반 단기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이 나오겠지만, 이번주에도 여전히 매크로 불확실성에 종속되는 국면에 놓여 있을 예정. 이런 측면에서 주중 미국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은 이들 실적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싸움을 하게 만드는 요인.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결과를 제공할 시, 미국 금리 및 인플레이션 부담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종속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것으로 판단.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1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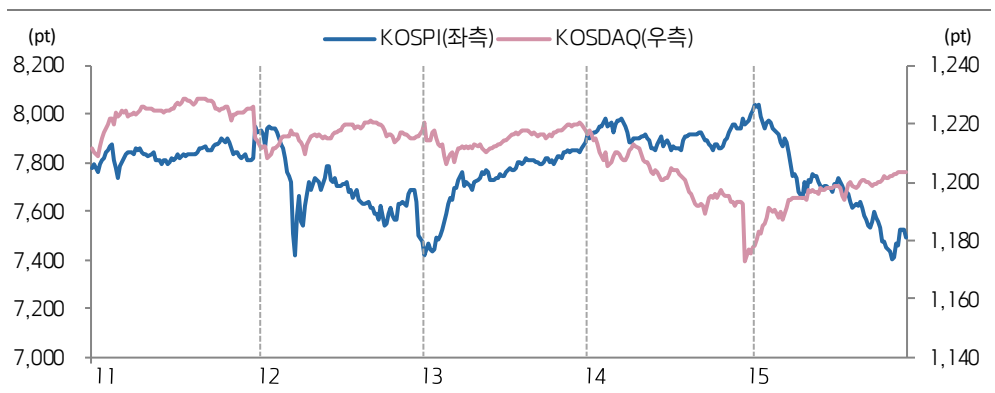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급등세와 AI 투자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미국 금리 급등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속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세로 전환 마감 (KOSPI -0.06%대, KOSDAQ -6.45%대).

코스피는 주 초반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반도체 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임. 특히 5월 1~10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8% 증가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장중 7,999pt까지 상승.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 환원 우려로 해석되며 외국인 과 기관 매도세가 확대. 이후 현대차그룹과 로봇·피지컬 AI 관련주 강세,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등이 반등 동력으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재차 상승폭을 확대했고, 장중 8,046.78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돌파.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차익실현 욕구가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이 주간 내내 순매도를 이어간 데 이어 15일 하루 동안 6조원대 순매도에 나서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 결국 코스피는 증가 기준 역대 2위 낙폭(-488.23p)을 기록하며 7,493.18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주간 내내 1,200선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주 후반 낙폭이 확대되며 1,129선까지 하락 마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경제사절단 합류, 엔비디아·AMAT 등 미국 반도체·장비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투자심리를 자극.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의 중동 중재 역할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재부각. 여기에 미국 4월 CPI와 PPI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5%를 돌파하며 1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상승. 이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후퇴했고, 금리 급등에 따른 할인율 부담과 고밸류에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 출회.

업종별로 보험(+5.55%), 통신(+4.75%), 운송장비/부품(+2.96%), 전기/전자(+1.99%), IT 서비스(+1.37%)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증권(-11.86%), 전기/가스(-10.28%), 기계/장비(-9.51%), 건설(-9.4%), 화학(-7.5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9조 8,953억원)은 운송/창고(-2,076억원), 일반서비스(-1,321억원), 기계/장비(-1,114억원), IT 서비스(-1,104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1조 1,140억원)은 증권(-1,702억원), 전기/가스(-990억원), 일반서비스(-640억원), 제약(-470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5월 18일	월	중국	실업률	4월	5.3%	5.4%
			산업생산 (YoY)	4월	6.0%	5.7%
			고정자산투자 (YTD YoY)	4월	1.7%	1.7%
			소매판매 (YoY)	4월	2.0%	1.7%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5월	34	34
		실적	SK 그룹, 이수페타시스, 한화			
5월 19일	화	일본	GDP 성장률 (QoQ, 잠정치)	1분기	0.4%	0.3%
		실적	홈플러스, 트립닷컴			
		행사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20일)			
5월 20일	수	EU	CPI (YoY, 최종치)	4월	-	3.0%
		발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실적	한미반도체			
5월 21일	목	한국	PPI (YoY)	4월	-	4.1%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5월	15.0	26.7
			S&P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53.6	54.5
			S&P 서비스업 PMI (잠정치)	5월	51.3	51.0
	공개	FOMC 회의록 공개 (오전 3시)				
	실적	엔비디아, 월마트				
5월 22일	금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5월	-	99.2
		일본	근원 CPI (YoY)	4월	1.8%	1.8%
	CPI (YoY)		4월	1.7%	1.5%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5월	-	84.4	
	미국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5월	48.2	48.2	
		미시간 1년 기대인플레이션 (최종치)	5월	-	4.5%	
		미시간 5년 기대인플레이션 (최종치)	5월	-	3.4%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국 금리 향방, 2)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및 4월 FOMC 의사록, 3) 일본 4월 CPI, 미국 5월 기대인플레이션, 4)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 내러티브 변화 여부, 5) 지난 금요일 폭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150~7,700pt).

16일(금) 미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성과 부재 속 트럼프의 이란 인프라 시설 공격 발언에 따른 유가 상승 및 미국 장기물 금리 급등, 한국 반도체주 폭락발 마이크론(-6.6%), 엔비디아(-4.4%) 등 미국 AI주 약세 여파로 1%대 급락(다우 -1.0%, S&P500 -1.2%, 나스닥 -1.5%).

5월 이후 주요국 증시는 반도체 등 AI주가 만들어낸 신고가 랠리를 누리면서, 매크로 및 지정학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를 낮게 가져갔던 상황. 지난주 미국의 4월 CPI, PPI가 잇따른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주식시장은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주도주인 AI 내러티브 베팅에 주력했던 모습.

그러나 전일 미국 10년물 금리가 심리적인 임계선으로 여겨졌던 4.5%를 돌파했다는 점이 분위기를 반전. 더욱이 트럼프의 전쟁 재개 시사성 발언으로 WTI가 100달러대를 재차 상회하는 등 에너지 인플레이션 장기화 불확실성도 높아진 실정. 그 여파로 Fed Watch상 내년까지 동결이 컨센서스였던 연준의 금리 전망이 내년 1월 인상으로 급선화하는 등 연준 긴축 불확실성도 가중됐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한층 더 냉각시킨 것으로 보임(Fed Watch 기준, 27년 1월 인상 확률 40%대 vs 기존 10%대).

이익 모멘텀 개선, AI 투자 확대 가능성 등 기존 증시 상승 재료는 훼손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주가 상승 속도” 자체가 단기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님. 이 같은 지수 레벨 및 속도 부담이 타이밍 상 미국 금리 급등과 맞물리면서 한국, 미국, 일본 등 반도체주의 영향력이 높았던 증시에 단기적인 포지션 청산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15일 제외, 5월 1~14일까지 주가 상승률: 코스피 +21.0%, 나스닥 +7.0%, 닛케이225 +5.7%).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6%대라는 역대급 폭락을 겪은 만큼, 주 초반 단기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이 나오겠지만, 이번주에도 여전히 매크로 불확실성에 종속되는 국면에 놓여 있을 예정. 이런 측면에서 주중 미국 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금리 상승에는 시카고 연은 등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의 보수적인 발언이 영향을 준 만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4월 FOMC 의사록 등 연준 관련 이벤트를 주시할 필요.

또 미국 금리 발작 사태에는 “일본 4월 PPI 쇼크 -> 일본 장기금리 급등” 충격이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이는 주 후반에 예정된 미국의 5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이외에도, 마이너 급 지표로 여겨졌던 일본의 4월 CPI(YoY, 컨센 1.7%)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높일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21일 한국시간 새벽 5시 이후)이 메인 이벤트. 과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시에도 수차례 목격했듯이,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된 감이 있음. 5월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약 13% 급등한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뿐만 아니라, 4월 말 이들의 고객사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AI CAPEX 가이드스 상향 효과도 상당부

분 영향을 주었기 때문.

따라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매출액(컨센 780억달러), 매출총이익률(GPM, 컨센 75.0%)이 어느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가 관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H200의 중국 기업 구매를 승인했던 만큼, 추후 가이던스에 중국향 매출이 반영되는지도 중요. 더 나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B200)의 수요 강도, 차세대 루빈(R100)의 구체적인 양산 일정과 공급자 선정 여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의 실적 전망과 직결된 사안.

이처럼 전세계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은 이들 실적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싸움을 하게 만드는 요인.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결과를 제공할 시, 미국 금리 및 인플레이션 부담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증속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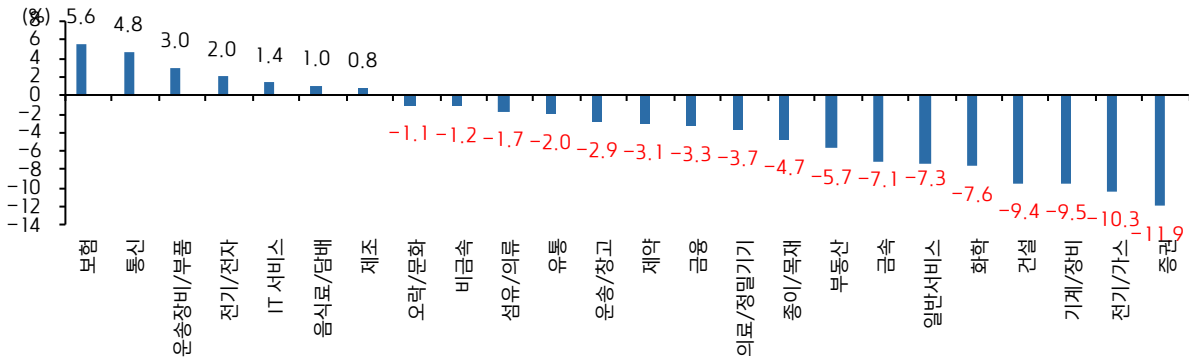
또한 21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총파업 이슈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노이즈를 주입시킬 수 있기에, 관련 뉴스플로우에도 주목할 필요(합의 실패 시, 21일부터 총 파업 예정, 정부는 파업 현실화될 경우,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태).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7,493.18	-6.1	-0.1	23.0	77.8
대형주	8,124.95	-6.3	0.4	25.2	85.6
중형주	4,896.72	-4.3	-4.9	6.2	31.5
소형주	2,838.27	-2.5	-4.7	-1.2	12.7
코스피 200	1,162.39	-6.5	1.0	26.8	91.8
코스닥	1,129.82	-5.1	-6.5	-2.0	22.1
대형주	2,740.12	-5.7	-5.7	-1.4	21.7
중형주	1,174.93	-4.7	-7.8	-0.9	30.6
소형주	3,117.64	-3.9	-6.6	-3.2	21.1
코스닥 150	1,901.28	-5.5	-6.2	-2.6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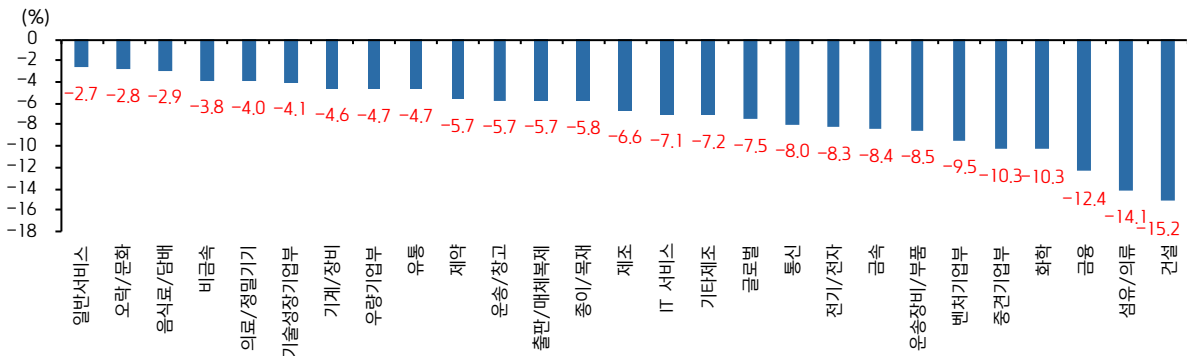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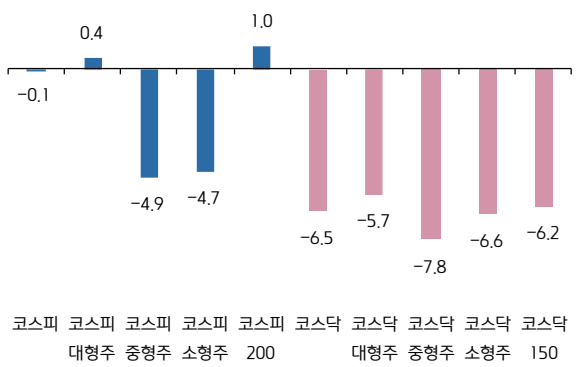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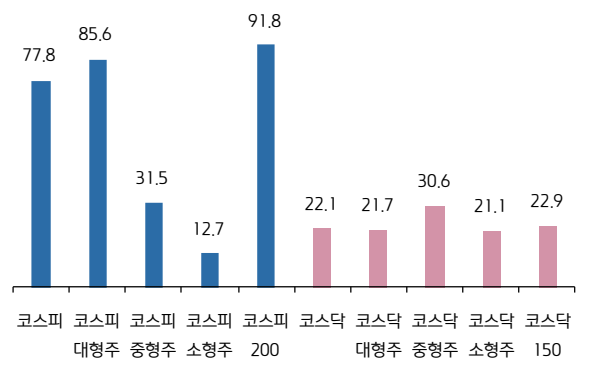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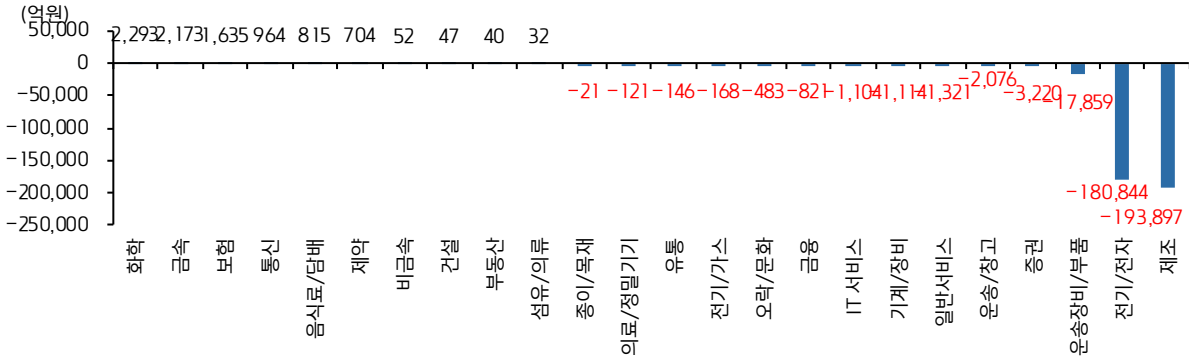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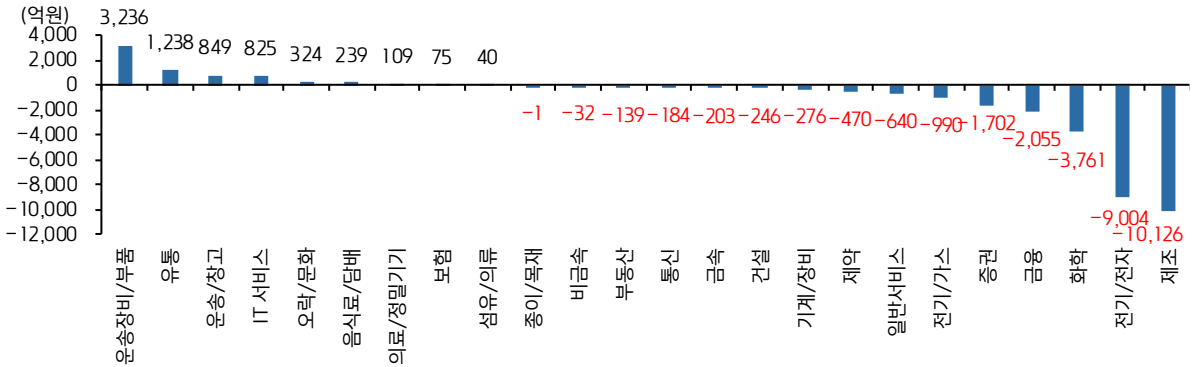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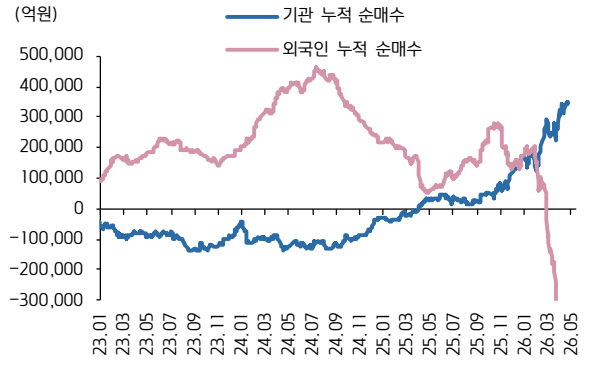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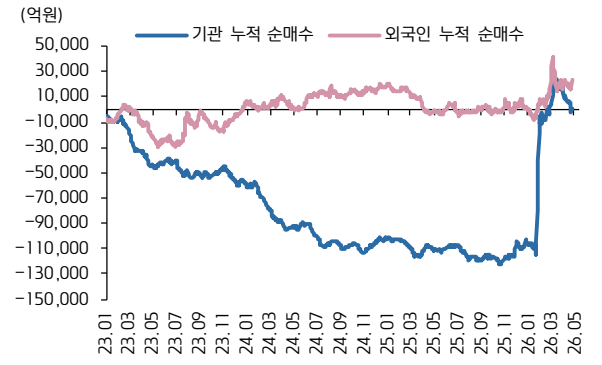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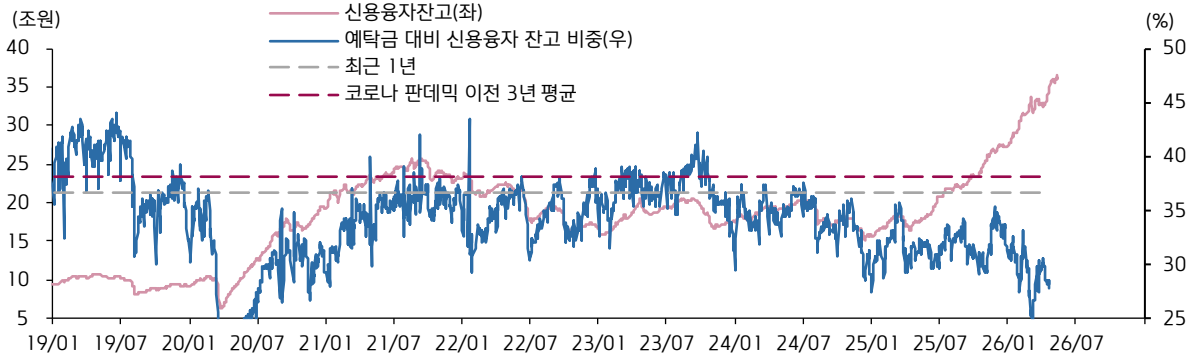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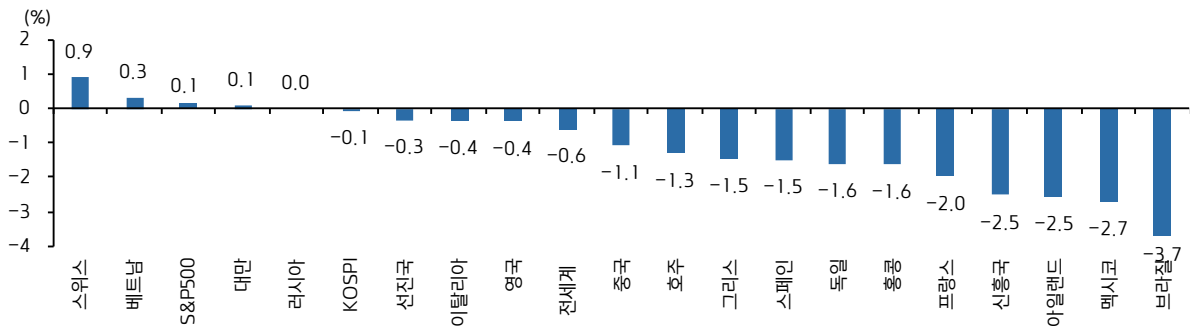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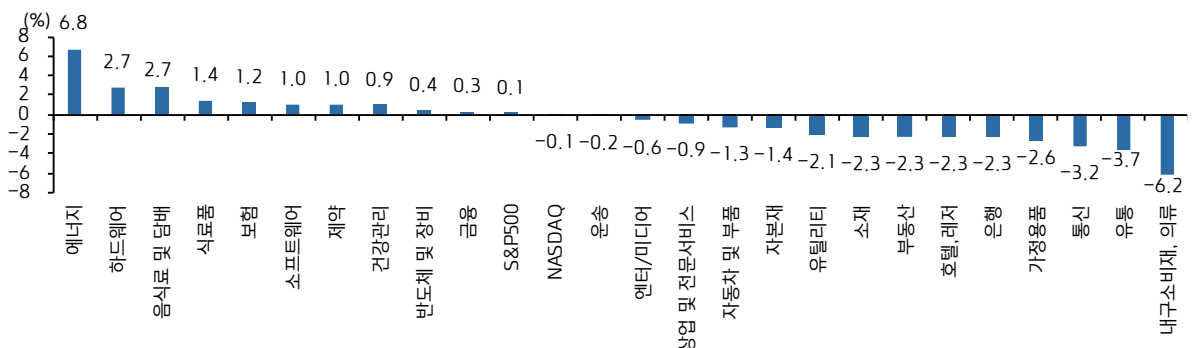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